

2004年2月28日 朝鮮日報

정동영의장 “한·일 해저터널 만들자” 제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7일 은 기자회견에서 “180km에 불과 한·일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 해저터널은 동북아 중심 거제도와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을 시대가 올 것임은 감안하면 이 지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역 그랜드비전으로 추진할 명분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 과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일본 도교를 방문 중인 정 의장 김홍집기자 mailer@chosun.com

鄭東泳議長が“韓日海底トンネル建設”を提案

ヨルリンウリ党の鄭東泳議長は、27日、韓日間の経済交流活性化のため、巨済島と九州を結ぶ海底トンネルを建設しよう、と提案した。

在来市場と中小企業視察のために東京を訪問中の鄭議長は、記者との懇親会で“180Kmに過ぎない韓日海底トンネルは、東北アジア中心の時代が来ることを考えると、この地域のグランドビジョンとして進めるだけの名分と経済性がある”と主張した。

鄭東泳（新千年民主党）【大韓民国国会手帳2002年度版より】

1953年生。ソウル大國史学科・英國ウェールズ大学院修士、MBC 社会部・政治部記者・特派員・アンカー、第15・16代国会議員、民主党代弁人・最高委員・常任顧問（現）、国防委・情報通信委・財經委員（現）、インターネット情報学会長（現）